

주간기도정보

2025. 10. 14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사 62:7) 주님은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간기도정보는 이 말씀에 근거하며, 열방의 소식들을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진행순서 (1) 예배 (2) 한국과 북한,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3) 열방을 위한 기도 - 한주간 긴급기도

1.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기록하여짐이라”

“본질로 돌아가라” 2026년 한국교회, 변화의 길을 묻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6’...선택과 집중으로 새 방향 제시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이 첫 번째 키워드로 ‘심플처치’를 제시하며 올해 한국교회의 방향을 제안했다. 복잡한 사역과 프로그램 속에서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가 단순함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절박함이 반영된 결과다.

목회데이터연구소와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지난 9월 29일에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을 공개했다. 2022년부터 신학교 교수, 언론인, 목회자, 통계전문가 등이 참여한 TFT가 준비한 이번 책은 한국교회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네 번째 분석서다. 2025년 5-6월 진행된 조사에는 목회자, 성도, 일반국민 등 5,019

명과 60개 선교단체가 참여했으며, 10명의 전문가가 분석과 대안을 제시했다.

대표 저자인 지용근 목회데이터연구소장은 “한국사회는 수평사회로 변했지만 교회는 여전히 위계적 구조에 머물러 있다”며 “변하지 않으면 젊은 세대와의 간극은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제는 ‘위에서 아래로’의 명령이 아닌, ‘옆에서 옆으로’의 협력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책은 코로나19 이후 교회의 회복 양상, 대형교회와 소형교회의 차이, 신앙 심화 현상 등을 균형 있게 분석했다. 또한 인공지능 시대의 목회 변화, 이주민 선교 등 10가지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2026년 교회의 지형을 전망했다.

첫 번째 키워드인 ‘심플처치’는 사역이 축소되고 교회 활동 참여가 감소되는 중에도 성도들의 영적갈망은 높아져 가는 상황에서 예배나 프로그램을 단순히 줄이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역을 재정비하고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 전략을 뜻한다.

두 번째 ‘AI, 목회 코파일럿’은 인공지능을 목회 현장에 적극 활용하는 움직임을 다뤘다. AI가 행정 업무를 대신하고 자료를 신속히 찾아줌으로써 목회자가 영적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세 번째 키워드 ‘강소교회’는 코로나 이후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소형교회의 가능성을 주목한다. 작지만 강한 교회, 뚜렷한 목회 철학과 공동체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밀착하며 성도들의 신앙을 깊게 세우는 데 강점을 가진다고 분석했다.

네 번째 ‘청빙, 비욘드 콘테스트’는 향후 10년 내 30% 이상이 은퇴할 것으로 예상되는 목회자 세대교체 문제를 다룬다. 단순한 설교력 중심의 공모식 청빙을 넘어, 영성, 사랑과 섬김, 인성 등도 겸비한 목회자를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섯 번째 ‘호모 스피리추얼리스’는 제도권 종교 인구는 줄고 무속 인구가 늘고 있는 현상은 오히려 사람들이 깊은 영적 필요를 갖고 있다는 방증이다. 기독교인들 또한 단순한 지적 신앙을 넘어 더 깊은 말씀 중심의 생활로 나아가려는 갈망을 충족하는 대안을 교회가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밖에도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 ▲서로 돌봄 공동체 ▲유리천정, 여성교역자 ▲헌금 패러다임 전환 ▲이주민 선교 등 한국교회가 직면한 현실적 과제를 함께 다루며, 단순하지만 깊은 신앙으로의 회복을 촉구하고 있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디모데전서 4:5-6)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앎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베드로후서 1:3-4)

하나님, 한국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수많은 프로그램과 시스템으로 분주하고 이름뿐인 교회로 생명력이 약해져가는 것은 아닌지 주님 앞에 서는 은혜를 주십시오.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더 삼았던 모든 것을 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도록 집중하게 하소서.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을 앎으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영광스런 성도들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목마르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하는 역사를 이뤄주소서.

2. 북한을 위한 기도

“공의와 인자를 구하는 자는 생명과 영광을 얻느니라”

추석 시기를 틈타 탈북자 가족 옥죄는 보위부

송금 브로커로 위장한 정보원 통해 신고 이행 여부 확인…속은 가족들은 보위부로



최근 북한 일부 지역에서 보위원들이 위장 송금 브로커를 탈북민 가족의 집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탈북민 가족들의 신고 이행 여부를 시험하기 위한 일종의 ‘떠보기’ 수법으로, 이에 일부 가족들이 걸려들었다는 전언이다.

데일리NK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청진시에서는 가짜 브로커들이 돈을 건네지 않은 채 가족의 사진만 찍으려 해 일부 가족은 수상함을 느껴 내쫓고 곧바로 보위원에게 신고했으나, 사진 촬영에 응하고 신고하지 않은 가족들은 보위부에 반복적으로 불려 다녔다고 한다.

지난달 중순 청진시의 한 탈북민 가족에게도 브로커로 가장한 인물이 찾아와 “사진을 찍어와야 돈을 보내겠다”고 요구했으나, 가족은 기존 방식과 다르다는 점을 의심해 “그런 돈은 받지 않는다”며 돌려보냈고, 이를 담당 보위원에게 즉시 알렸다. 소식통은 “진짜 브로커들은 돈을 전달한 뒤 증빙 사진이나 영상을 남기지만, 가짜 브로커들은 사진만 요구해 뒤늦게 보위부의 계략임을 알게 된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탈북민 가족들은 송금 브로커의 진위를 한눈에 구분하기 어려워 조금이라도 수상하면 신고하거나 돈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해왔으나, 여전히 다수는 불이익을 우려해 침묵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보위원들은 신고가 실제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위장 브로커 역할까지 하며 반복적으로 접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일부 탈북민 가족들은 “가짜 브로커가 ‘요즘은 돈도 주지 않고 송금했다고 속이는 사람이 많아 사진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위협을 무릅쓰고 왔다”고 말하자 이를 믿고 사진 촬영에 응한 후 신고하지 않았고, 이후 보위부 소환 조사에서 그들이 정보원이었음을 알게 됐다.

소식통은 “요즘 보위원들은 추석을 앞두고 탈북민들이 가족에게 돈을 보낸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신고가 거의 없어 보위원들이 직접 떠보기에 나선 것”이라며 “해외 가족들이 보내주는 돈이 유일한 생계 수단인 상황에서 보위원들이 이를 악용해 송금 브로커 체포와 회수한 돈을 사적으로 챙기려 하고 있어 돈을 받기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런 상황에서 진짜 송금 브로커들은 자칫 보위부 단속에 걸릴 수 있다는 불안감에 활동을 자제하거나 극도로 조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출처: 데일리NK 종합).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잠언 21:6,21)

그 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쉼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이사야 2:17,22)

하나님, 명절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쁨보다 가짜 브로커를 이용한 보위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으려 긴장과 경계 가운데 있는 탈북민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회적 배제가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이들을 향한 감시와 착취가 멈춰지게 하시고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며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진 당국 관계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북한의 모든 영혼을 친히 십자가 복음 앞에 세우사 진리를 대적하는 이 땅의 거짓된 사상이 파하여지게 하시고 홀로 높임 받기 합당하신 주께 엎드려지는 은혜를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주의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며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얻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3.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모든 민족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2025 G2A 집회, “부흥은 이미 시작됐다, 살아 있는 믿음을 회복하라”

G2A 첫 집회 1만5,000명 열기, 10-20대 참여율 60% 달해



130여 개 선교단체와 교회가 연합한 대규모 선교운동 ‘2025 G2A 집회’가 3일 경기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 4·5홀에서 열렸다. 집회는 정오부터 10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1천여 명의 자원봉사자와 1만 5천여 명의 참석자가 함께해 열기를 더했다.

‘G2A’는 ‘Go To All’의 약자로, 모든 사람·민족·영역에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를 담은 총체적 선교운동이다. 이번 집회는 ▲부흥(Revival) ▲부르심(The Call) ▲제자도(Discipleship) ▲열방(All nations) 등 네 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각 세션 후에는 찬양과 말씀 선포, 그리고 청소년·복음전파·신학생/목회자·캠퍼스·일터·열방

등 6개 미션필드를 중심으로 한 기도가 이어졌으며, 마지막은 파송과 축도로 마무리됐다.

김상인(김포 움직이는교회) 목사는 ‘부흥’을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에서 한국교회의 부흥 역사와 영적 유산을 소개하며, 다음세대가 그 불씨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흥은 심긴 씨앗의 열매로, 초기 선교사들은 복음 전파를 넘어 공동체의 자생력을 세우는 데 힘썼다”고 말했다. 또 “형식적 신앙을 버리고 살아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성경은 성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를 말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집회의 특징은 ‘애프터 액션’(After Action)을 통해 참석자들이 일상 속에서도 선교적 삶을 실천하도록 한 것이다. 집회 현장인 제3홀에는 6개 미션필드 관련 안내 부스를 비롯해 신앙 상담 부스와 다양한 기독교 단체 부스가 운영돼 참석자들을 도왔다. 각 미션필드는 신앙적 결단 이후 실천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지역별 네트워크를 통해 사역자 및 단체와 연결했다.

‘청소년 미션필드’에선 학교마다 기도 모임이 세워지길 함께 기도했고, 주최 측은 82개 도시에 ‘신앙의 광장’을 세우고 전국 5,652개 학교에 기도 모임을 확산하는 비전을 제시했다. 또한 초신자 대상의 8주 온라인 ‘복음전파 미션필드’와 일터·소명·선교적 삶 등을 다루는 ‘일터 미션필드’ 온라인 모임을 통해 신앙을 삶 속에서 실천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성창민(부산 새희망교회) 부산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은 “다음세대가 예배 후 각자의 영역에서 선교적 열망을 틔울 수 있도록 연결한 점이야말로 한국교회에 꼭 필요한 사역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경기도 이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기도 모임인 ‘더필드’를 이끄는 정하은 양은 “10시간 동안 쉬지 않고 예배드리면서 학교 안에서도 예배가 회복되길 소망하는 마음이 더 단단해졌다”고 말했다.

박동찬(일산광림교회) 목사는 어린 세대로서 G2A를 후원했다. 박 목사는 “새벽에 출발한 버스에서 내려 예배 장소로 몰려오는 장면을 보면서 한국교회의 새로운 소망을 느꼈다”며 “다음세대가 부흥을 향한 선배들의 열망과 꿈의 바통을 이어받길 기도한다”고 했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국민일보 종합).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요한계시록 14:4,6)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야고보서 2:22-23)

하나님, 자신의 삶뿐 아니라 모든 영역과 모든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영화롭게 되는 부흥을 열망하는 다음세대를 일으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G2A 집회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한국교회의 기초를 세운 선교사들의 헌신으로 맺어진 복음의 열매가 자신임을 기억하고, 그들과 같은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세속주의와 무신론의 영향력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세상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순결한 예수교회로 일으켜 주옵소서. 집회 이후에도 형식적인 신앙이 아닌 살아 있는 믿음으로 부르신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 받는 부흥의 세대로 일어나 선교 완성을 위해 전진하게 하소서.

다음은 ‘열방의 긴급기도정보’로 기도가 진행됩니다.
각 해당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 기도실1 -
- 기도실2 -
- 기도실3 -

소그룹별 기도가 마친 후에는 다시 함께 모여 합심기도로 마무리합니다.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